

원주 첫 AI 아파트 수요자 관심

〈인공지능〉

봉화산 벨라시티 3차 아파트
단계동서 모델하우스 개관
499세대 규모·원격 제어 가능

【원주】지역에서 처음 인공지능(AI)을 갖춘 아파트가 분양된다.

향토기업인 SG건설(회장: 조창진)은 8일 AK백화점 뒤편인 단계동 1122-3에 '봉화산 벨라시티 3차'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개관하고 수요자들을 맞는다.

100% 분양된 벨라시티 1, 2차 단지 인근에 신축되는 3차는 원주지역 최초로 AI시스템을 갖춰 고령자, 어린이 등 노약자를 배려한 아파트로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3차는 KT에서 개발한 AI솔루션인 기가지니와 월패드 결합돼 음성 인식과 원격 제어로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다.

기가지니의 장점은 기존의 터치방식이 아닌 음성인식방식으로 안방, 거실, 주방 등에 설치된 음성인식기를 통해 조명, 난방, 가스, 보일러 등 빌트인



◇향토기업인 SG건설이 신축하는 벨라시티 3차 아파트 조감도.

기와 사물인터넷(IoT) 가전 제품인 TV, 공기청정기, 로봇 청소기 등을 제어할 수 있다.

단계동 490-3 일원에 들어서서 벨라시티 3차는 전용면적 59㎡, 84㎡ 등 499세대 중소형 규모이며 인근 1, 2차 단지와 함께 1,900여세대 단지를 완성한다. 조창진 회장은 "입주민들이 SG플라자 '마이테라스'에서 소식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출입구를 분리한 부분 임대형 혁신 설계 구조로 전월세 수입이 가능하며 에너지 비용 최소화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유학렬기자 hyyoo@kwnews.co.kr